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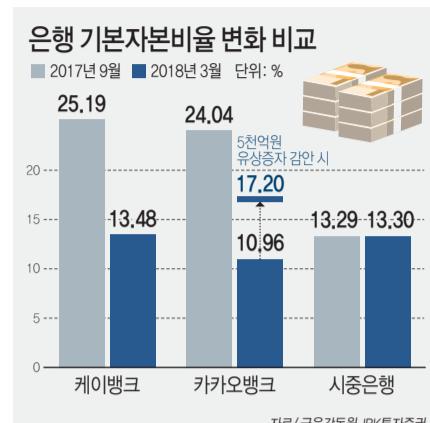
# 은산분리 신호탄 쐬지만… 대주주 자격요건 등 과제 산적

대기업 집단 대주주 배제 가능성에  
카카오는 물론 향후 네이버도 '발목'  
케이뱅크 최종인정까지 지켜봐야

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던 은산  
분리(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) 규제완  
화가 급물살을 탔지만 여전히 산넘어 산  
이다.

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주  
주자격 요건이 어떻게 규정될지 지켜봐  
야 하며, 이에 따라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  
오뱅크는 물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 
신규 진입까지 은산분리 완화 효과가 기  
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결제은  
행(BIS) 기준 기본자본비율은 지난 3월



말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 
13.48%, 10.96%다. 출범 초기였던 지난해  
9월 각각 25.19%, 24.04%에서 급락했다.

반면 시중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은 지난  
해 9월 말 13.29%, 올해 3월 말 13.30%로  
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.

인터넷전문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은 급락  
은 자산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낮은 수익

성에 적자가 커지면서다. 카카오뱅크는  
지난 4월 5000억원의 유상증자로 기본자  
본비율은 17.2%로 회복되겠지만 유상증  
자가 300억원에 그친 케이뱅크의 경우 큰  
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산분리 규제완  
화에 매달린 것도 이런 자금조달 걱정을  
덜기 위해서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. 은  
산분리 규제가 풀려도 세부적인 결정에  
따라 혜택이 제외될 수도 있다.

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인 카카오는 이  
날 2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  
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  
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리겠다고 밝혔  
다.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 
10%지만 콜옵션 계약 등으로 지분을 확  
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 
다.

배재현 카카오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 
“콜옵션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인수 지분  
어야 한다.

율에 대해서 주주들과 협의할 부분이 있  
고 자세한 사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”며  
“주가 지분 취득 금액은 현재 영업현금흐  
름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”이라고  
설명했다.

문제는 카카오의 자산이 이미 8조5000  
억원에 달하는 데 있다. 10조원을 넘기면  
총수가 있는 대기업으로 지정된다.

현재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가장  
통과 가능성성이 높은 정재호 의원의 법안  
은 ‘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’은 은  
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 
다.

이 경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력  
후보군으로 꼽히는 네이버 등도 진입을  
포기해야 한다.

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는 총수가  
없지만 역시 대주주 자격을 까다롭게 규  
정하고 있어 최종 인정을 받을 지는 지켜  
봐야 한다.

은산분리 규제가 풀려 자본조달이 원  
활하더라도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라 전  
망도 나온다.

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“증자  
로 자본비율이 상승하더라도 다시 하락  
할 것으로 보여 공격적인 영업에 활용되  
기는 어려울 것”이라며 “자본비율 외에도  
신용대출에 의존해 자산을 키운 만큼 경  
기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”고 지  
적했다.

또 은산분리 완화를 계기로 제3, 4의 인  
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경쟁이 심화  
되는 것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 
을 둔화시킬 수 있다.

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“새로운  
플레이어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보다는  
일단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전체의 파이  
를 키우는 것이 더 긍정적인 만큼 아직은  
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”고 말했다.

/안상미기자 smahn1@metroseoul.co.kr

##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확대

매매가 전주比 0.02% 오른 0.18%

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 
조금 줄었다. 반면 서울은 상승폭이 4주  
연속 확대돼 지방과의 양극화 현상이 지  
속됐다.

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 
(지난 6일 기준)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  
격이 0.03%, 전세가격은 0.08% 하락했다.

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 
-0.04%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축소된 -  
0.03%를 기록했다. 그러나 수도권  
(0.04%→0.05%)과 서울(0.16%→0.  
18%)은 상승폭이 확대돼 지방과의 격차  
가 벌어졌다.

/체신화 기자 csh9101@

특히 서울에선 ‘용산 마스터플랜’ 기대  
감에 용산구와 여의도 통합개발이 있는  
영등포구가 각각 0.29% 올라 가장 높은  
상승률을 보였다.

GTX B노선, 경전철 등 다양한 개발호  
재가 있는 동대문구도 상승폭(0.25%)이  
컸다. 송파구(0.22%)와 서초구(0.15%)도  
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상승 기대  
감이 높아졌다.

시도별로는 서울(0.18%), 대구  
(0.07%), 전남(0.03%), 대전(0.02%), 광  
주(0.01%)가 상승했다. 경남(-0.33%),  
울산(-0.29%), 제주(-0.20%), 충북(-0.  
19%), 경북(-0.15%) 등은 하락했다.



김경수 경남도지사(왼쪽)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9일 오후 '드루킹' 김동원 씨(오른쪽)가 서  
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.

/연합뉴스

## 김경수·드루킹 특검 출석… 수사 ‘전환점’

### 킹크랩 시연 여부 수사 쟁점

### 송인배 비서관도 소환 검토

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  
지사의 ‘2차전’ 결과가 드루킹 수사의  
전환점이 될 전망이다.

특검은 9일 김 도지사와 드루킹 김동  
원 씨를 강남 사무실로 불러 댓글조작  
관여 여부를 캐물었다.

이날 오전 출석한 김 도지사는 “정치  
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  
검이 돼라”는 기준 입장을 반복했다.

오후에 도착한 김씨는 따로 입장을  
밝히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.

김씨는 댓글 조작의 베타리자 총  
임자로 김 도지사를 지목한다. 반면 김  
도지사는 댓글 조작에 쓰인 프로그램  
‘킹크랩’을 모른다는 입장이다. 특검이  
김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 
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다.

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  
킹이 운영한 경기도 괴주 소재 느릅나  
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  
용을 승인·묵인했다고 본다.

김 지사는 출판사 방문 사실을 인정  
하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기억은 없  
다고 주장한다.

첨예하게 부딪히는 공방의 진위를  
가려낼 출판사 내부 CCTV 등 물적 증  
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여 여부가  
향후 수사의 행방을 결정짓는 만큼, 두  
사람의 대질 가능성도 거론됐다. 김 지  
사는 특검 출석 전부터 대질신문을 포함  
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.

김 도지사와 관련된 특검 수사는 전  
날 측근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타격을  
입었다.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  
담부장관사는 8일 도모 변호사에 대한  
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이는 지난달 19  
일 이후 두 번째다. 법원은 그가 수사에  
성실히 임하고 있고, 증거 인멸 염려도  
없다고 봤다.

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  
사카 총영사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  
을 받는 인물이다.

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 
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(故) 노회찬 정  
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 
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데 관여하  
고,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했다고 본다.

이와 관련, 특검의 수사 대상은 청와  
대로 넓혀지고 있다. 특검은 백원우 청  
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 
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.

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오사카 총영사  
직과 관련해 백 비서관과 만난 경위를  
놓고 의혹이 일었다.

특검은 2016년 김 지사에게 드루킹  
을 소개하고, 이후 금품을 받았다고 알  
려진 송 비서관 소환도 검토하는 것으  
로 알려졌다.

/이범종 기자 joker@

## 7월 가계대출 4.8조 증가… 3개월 연속 감소세

은행권 기업대출 증가폭 커  
5조8000억원 증가 전환



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‘2018년 7월 중 금융시장  
동향’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 
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796조6000억원으로  
나타났다.

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 4월(7조  
3000억원) 이후 5월 6조8000억원, 6월 6  
조2000억원, 7월 5조5000억원으로 둔화  
되는 추세다.

주택담보대출은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  
심으로 증가 폭이 3조1000억원으로 6월  
(3조2000억원)보다 소폭 줄었다. 전년 동월  
(5조7000억원)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다.

신용대출,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 
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했  
지만, 증가 폭은 지난달(1조8000억)보다  
소폭 감소한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.

한은 관계자는 “올해 들어 정부의 신D  
TI(총부채상환比率)과 DSR(총체적상  
환능력비율)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 
가 둔화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## 6월 시중 통화량 2621兆… 전년 동기比 6.7% 늘어

6월 통화량 증가율이 6%대로 상승하  
며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.

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‘2018년 6월 중  
통화 및 유동성’에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  
통화량을 의미하는 통화량(M2)은 전년  
동기 대비 6.7% 증가한 2621조2000억원  
을 기록했다.

M2는 현금, 요구불예금, 수시입출식  
저축성 예금, 머니마켓펀드(MMF) 등 넓

은 의미의 통화 지표를 뜻한다.

M2 증가율은 2015년 10월 이후 가계대  
출 증가세가 둔화와 함께 낮아져 지난해  
8월부터 12월까지 4%대에 머물렀다가 올  
해 들어 5%대로 반등했다. 1월 증가율은  
5.5%, 2월은 6.2%, 3월은 5.8%, 4월은 5.  
7%, 5월은 5.9%로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  
록했다.

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전  
월 줄었다.

달보다 9조9000억원 늘었다. MMF 4조  
6000억원, 수익증권 3조2000억원은 증가  
했으나 2년 미만 외화예수금 4조6000억  
원은 감소했다.

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 
7조3000억원 늘었다. 기타부문은 3조  
3000억원, 기타금융기관은 1조7000억원  
은 증가했다. 반면 기업부문은 3조5000억  
원 줄었다.

/김희주 기자 hj89@